

1600년 한국불교 교과서는 '홀대'

불광연구원, 불교사회학, 교과서 불교 기술 분석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부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발행 역사교과서에 불교 관련 서술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적지 않아 불교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역사와 교육학회(회장 이상일)는 6월 15일 개최한 학술 연찬회에서 한국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서술을 분석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분석한 신선혜(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 씨는 현행 교과서가 이전과는 달리 불교의 전래와 발달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수록됐지만 문화재를 통한 불교의 접근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차돈이 절을 짓기 위해 귀족들이 성스럽게 여긴 숲(천경림)을 벌목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산으로 표현하는 등의 세부적 오류들이 발견됐다는 게 신선 씨의 지적이다. 교과서 내 불교 용어도 착종이 많아 중학교와의 연계 학습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들은 역사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는 중, 고등학교

교의 교과서들이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분석한 논문에는 따르면 중학 역사 교과서에서 조선 이후에 불교 서술은 송유역불과 임진왜란 당시 사명 유정 대사의 활약을 제외하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 불교의 특징을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불교의 성향이 남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오류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우리의 기록, 호국불교는 전근대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지만 이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며 "불교는 고대 종교이고 세계 보편적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배우는 학생들이 기복과 호국으로 이해한다면 불교의 장래는 밝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등 국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8종의 고교 국사교과서를 분석해 △백제, 고구려 불교 공인 누락 △제각기 다른 종파불교의 성립 시점 △유가 종을 법상종으로 표현한 내용 △천태종의 선종에 대한 영향 △신라 말 선종과 호족세력의 관계 △조선시대 의승군 부분 누락 △근·현대 불



초등 사회 교과서

해석 오류, 표현 애매

중학교와 연계 낮아

중학 역사 교과서

조선 이후 불교 서술

억불정책 · 사명대사만

고등 국사 교과서

곳곳에 오류 많아

수능 국사 문제 중

불교 관련 문항 1개

교사 누락 등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2013년 국사 수능 총 20개 문항 중 불교와 직접 관계된 문항은 보조 지문의 사상을 묻는 한 개의 문항 뿐이다. 7.1%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을 위한 교과서, 게다가 그 시험의 5%에 불과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 불교 관련 내용이 유쾌하지 않다"며 "고려 유가종을 법상종으로 표기하고 후대에 화엄종 초조로 추존된 의상 대사가 화엄종을 창종했다고 표현하는 등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시대 의승군에 대한 교과서들의 기술에 대해서도 "의승군들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이 인색하기 짝이 없다"며 "또한, 휴정과 유정 등이 이끄는 승병의 활약도 컸다" "육지에서는 전직 관료, 사림, 승려 등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일어났다"는 표현처럼 참전 사실을 명기한 교과서는 3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고등학교 근대사>에 수록된 개화파와 불교사상의 문제, 이동인 관련 내용 등은 8종의 교과서 어디에서도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교과서 역사학회를 구성해 잘못된거나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 노덕현 기자



통도사 단오절 화재예방 용왕대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스님)는 6월12일 단오를 맞아 경내 구룡지 일대에서 용왕대제를 개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각 전각별 소금단지를 교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원산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함께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조계종·선학원 법인법 갈등 풀릴까

법인법 제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조계종과 선학원이 협의를 진행할 협의체와 실무위원회를 잇달아 구성해 향후 협상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학원과 협의의 관한 일체를 위임받은 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원담)는 6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실무위를 구성했다.

실무위는 김영일 총무부 차장, 정병택 기획실 법무전문위원, 전창훈 중앙총회 사무처 팀장과 조영희 주임이 선임됐다. 실무위는 소위의 업무 지원을 비롯해 실무 적용 등의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상의 기본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선학원과 종단이 한 뿌리임을 전제로 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선학원이 법인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데 활동의 주안점을 둘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법인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협상 내용에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도 6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종단과 대화할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종단이 '선학원 협상소위원회 구성원 명부 협조 요청의 건'을 공문으로 보내온 데 따라 송은 스님

손하는 내용을 협상 내용에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도 6월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종단과 대화할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종단이 '선학원 협상소위원회 구성원 명부 협조 요청의 건'을 공문으로 보내온 데 따라 송은 스님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실무소위까지 꾸려

'한 뿌리·법인법 오해 해소'

선학원, 협상위 구성

'법인법 전제한 대화는 거부'

(총무이사), 정덕 스님(교무이사), 현진 스님(재무이사)의 3자 이사와 철오 스님(사전 구룡선원 주지), 보운 스님(진주 천진선원 주지) 등 총 5인을 소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오는 7월 중 지역별 중진 분원장 회의를 개최해 △법인법을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 △

2002년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 정혜사와 간월암을 원상회복하라 등의 내용을 분원장 스님들에게 주지키로 했다.

법인법과 관련 종단이 향후 규제를 가해 올 경우를 대비해 금정사 교육·수계도량 지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 했다.

"승가청규는 강제조항 아니다"

종단채신위 기자간담회서...포살음 제작 계획도

조계종 종단 모든 스님에게 적용되는 첫 보편적 청규인 '승가청규' 제정안에 대해 종단 채신위원회가 청규에 강제력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종단채신위원회(위원장 밀운)는 6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정안 공개이후 제기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청규 제정을 주도한 청규제정위원장 설우 스님은 "청규는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이자 지침"이라며 "법제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청규까지 강제성을 갖고 형벌을 가하는 법이 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청규 위에는 종헌종법이라는 법제도가 있으므로 청규를 어기면 법제도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일축한 스님은 "청규가 성공적으

로 정착하기 위해선 종도들의 인식이 우선이다. 포살음 제작 때 범망경을 대신해 활용돼 일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가청규는 의복은 절기에 맞춰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소유하고 고가의 사치스런 옷감은 피한다. 또 소속지족의 정신으로 소박하게 전통적인 사찰음식의 식생활을 권장하며 질병 및 영양 등의 이유가 아니면 육식을 삼간다. 승랍 10년 미만은 공용차를 이용해야 하며, 본사주지 이상 중진스님들도 3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보고된 승가청규는 종무회의와 종정예하 교시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 공식 선포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2013 한마음아버지마당 교육생 모집

다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 Tel.031-471-6926~7
• 매주 월요일은 휴무

아버지로서 책임감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고단한 아버지지만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속 깊이 담아둔 고민과 상처, 꿈과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들과 남편, 아버지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주인, 가정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덕불교 LED 인등 전구

031792-6288
031794-4055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45호 INDEX

시방세계 광명선원 중창불사 회향



5 6월 호국의 달 철원 도피안사·심원사를 가다



12 불교와 미학

13 해외 티베트 라싸, 개발로 신음 파키스탄 불교유적 위기

18 마음 붓다팔라 스님의 '사미 아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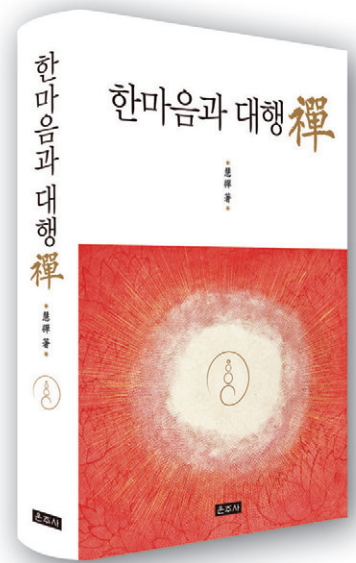
대행 큰스님 원적 1주기 기념 출판!

대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각고의 고행, 치열한 수행정진, 동체대비심의 무애행과 자애로운 보살행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된 대승보살! 독창적인 선사상과 수행 체계를 세우고, 참선수행의 대중화, 보편화, 현대화를 이끈 시대의 큰 스승!

나라는 경계가 있다면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상대가 어떻게 행하여도 모두가 주인공 나뉠 뿐이다. 모두가 주인공!

慧禪 저/신공판양장/624쪽/28,000원



한마음과 대행 禪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